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Feb. 08, 2026

(통권 1093호)



오늘의 말씀

“나로부터 시작하리”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이 시리즈 내내 우리는 설교가 시작되기 전 이 구절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기초 세우기”를 함께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의 기초와 기둥들에 대해 논리적인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년을 여는 첫번째 시리즈로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교리적 기둥이 되는 Five Solas시리즈를 통해 교리적으로 개혁교회는 어떤 교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열 네번째 시리즈로서 “참 신자의 삶 살아가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는 성도로서의 삶의 현실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서론 ~ 저는 오늘의 말씀을 지난 주간 새벽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14장은 십자가를 앞둔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다락방 설교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앞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붙들어 왔던 모든 기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14:1).” 이 말씀은 근심 자체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근심”으로 사용하신 헬라어 [타라쏘(ταράσσω)]는 ‘마음이 뒤흔들려 방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왜 근심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 근심이 너희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시선을 다시 정렬시키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본론

근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정렬(alignment)’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은 이유를 우리는 교회 때문, 사람 때문, 세상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의 초점을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느냐 보다, 누가 너희 삶의 중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요 14:1~2a]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a)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새벽 설교에서 다룬 것처럼, KJV이 이 구절을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천국은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지고 장식되어진 곳으로 설명되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이란 미래의 어느 시점, 우리가 죽고 난 후에나 들어가게 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상상 속의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할 곳[μονή]’, 즉 천국은 미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현재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여기 ‘거할 곳[μονή]’의 의미는 ‘임시 숙소’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자리, 지속적인 동거의 공간”을 뜻합니다. 핵심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이미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젠가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연장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잃은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항상 편안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항상 천국 없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으며,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그분께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신앙을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고,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1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천국을 사는 삶은 정렬(aligned)된 삶입니다. 이것이 그 놀라운 교리편을 끝내고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로마서의 전환점에서 바울이 주는 권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은 ‘헌신’이 아니라 ‘정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바울은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자비’를 근거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드리라”는 말은 강요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산 제물”은 죽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렬된 살아 있는 삶을 뜻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무언가를 더 보태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다시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음 가르침은 “변화는 외형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변화’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모르포오(μεταμορφώω)는

본질에서부터의 변화를 뜻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정렬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형시키십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영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Metamorphosis입니다. 이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변형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아주 중요한 예증이 바로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처음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아가미를 가진 어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생태계에 넣어 주신 유전자의 역할에 따라 아가미가 없어지고, 대신 폐가 발달하며, 꼬리가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네 다리를 가진 개구리로 변형됩니다. 올챙이는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물 밖에서나 안에서나 자유 자재로 생명을 유지하며 움직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존재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행히도 개구리가 되지 못한 채 올챙이로 늙어 죽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엄청 커지고 몸은 개구리만한데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올챙이로 늙어 죽습니다. 이 변화는 올챙이의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요오드의 섭취에서 옵니다. 만약 성도가 영혼을 건강하게 할 말씀의 섭취나 성령의 충만을 가져오는 기도와 같은 건강한 영적 섭취를 게을리하고 신화적 요소들이나 신비한 이야기만 소비하는 신앙 생활을 계속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칫 몸집만 거대해 지고 결국 개구리가 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올챙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Metamorphosis의 또 다른 예증입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성장한 나비가 알을 낳았습니다. 거기에서 깨어나온 아기는 애벌레입니다. 그러나 이 애벌레가 입에서 실을 뿜어내어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거의 죽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고치를 가르고 나비가 되어 나오는 날, 애벌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애벌레와는 완전히 다른 변태, 즉 본질적 변화를 경험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심을 입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정렬(aligned)되어진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그서는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시 51:10]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 주세요”, “주변 사람을 바꿔 주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정렬해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맞추어졌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자학이나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다시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 “나로부터 시작되리!” 교회의 회복과 아름다운 신앙세계의 변화는, 환경을 개선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고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 그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와 주님의 나라의 향기와 실존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렸고, 누군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상황을 바로잡거나 누군가를 고치려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삶이 성령의 인도에 다시 맞추어질 때, 그 삶이 시작됩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begins not with fixing

others, or fixing others, but with aligning my own life with the Spir-it).”

오늘의 기도 포인트들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붙들고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A. 주님, 근심과 염려가 되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소서

B. 내 삶의 중심이 다시 성령께 정렬되고, 오늘의 나의 삶이 천국의
연장이 되게 하소서.

C.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